



“태극전사 전훈 점수는 90점”

2018 러시아월드컵 축구대표팀 신태용 감독이 11일 오후(현지시간) 오스트리아 레오강 기자단 숙소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날 신태용호는 비공개로 진행된 세네갈과의 평가전에서 0-2로 패하며 오스트리아 레오강 훈련 캠프를 마감했다. 신태용호는 12일 오후(현지시간) 독일 뮌헨을 거쳐 베이스캠프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에 입성한다. /연합뉴스

신태용 월드컵 대표팀 감독 만족감 드러내... 조별리그 첫 상대 스웨덴전 자신감도

신태용 축구대표팀 감독이 12일 오스트리아 레오강에서 열린 전지훈련 결산 인터뷰에서 만족감을 드러냈다. 신 감독은 훈련 성과에 만족하는 질문에 “경기를 뛰러 왔다 갔다 하는 부분, 이동에서는 좋지 않았다”며 “(주변) 경치나 운동 여건, 숙소는 모두 좋았다. 평가전에서 초기 목표를 달성 못했지만 만족하고 잘했다고 생각한다”고 90점의 높은 점수를 줬다. 대표팀은 지난 3일 오스트리아 잘츠부르크 인근의 사골 마을인 레오강에 전용 캠프를 차리고 두 차례 평가전을 치렀다. 7일 볼리비아전 0-0 무승부에 이어 세네갈과 비공개 평가전에서는 0-2 패배로 두 경기 연속 무승과 무득점에 그쳤지만 신체 리듬이 불균형 상태였던 선수들의 체력과 조직력을 끌어올리는 데는 성공했다. 신 감독은 ‘실력을 계속한다’는 지적에 대해선 “스웨덴 한 팀과 경기하는 게 아니

다. 스웨덴과 좋은 경기 하더라도 멕시코, 독일이 남아 있다. 3경기를 모두 해야 한다”며 “이 선수를 어떤 포지션에 뭉 것인지 내 머리 안에 있다. 밖에서 보는 사람들은 실험한다고만 이야기한다. 그것은 실험이 아니다. 이 선수를 쓰면서 다음에 어떻게 쓰고, 선수 교체를 어떻게 할지 구상하고 있다. 하나의 만들어 가는 과정”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세네갈전 소독에 대해선 “세네갈은 스웨덴과 같은 4-4-2를 쓰지만 플레이 스타일이 다르다. 세네갈이 가진 스타일보다 가장 스웨덴을 생각하며 경기했다”며 “세네갈 선수들이 워낙 스피드가 좋고 파워가 좋아 우리 선수들이 일대일 개인 마크에서 힘들었다. 수비에서 많은 도움이 됐다”고 자랑했다. 프리킥과 코너킥 등 상황의 세트피스 득점 전략과 관련해서 “기회가 왔을 때 좋은 신장을 가진 스웨덴, 멕시코를 상대로 세트피스를 만들어 가는 과정”이라면서 “경기 내용이 유출될 수 있어 기본적인 세트피스만 했다. 본 시합에 들어가면 높이가 좋은 스웨덴 선수들을 상대로 세트피스 하

겠다”고 설명했다. 월드컵 첫 상대 스웨덴과 대결에는 자신감을 드러냈다. 그는 “스웨덴 경기를 보고 왔고, 경기 영상도 10개 정도 봤다. 제 눈으로 직접 확인했기 때문에 패턴을 선수들에게 인식시키고 있다”며 “상대 선수들이 제대로 못하게 하고 어떻게 득점할 수 있을지 잘 만들면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생애 첫 월드컵을 사령관으로 맞는 것에 대해선 “감독을 하고 난 다음에 본선 무대를 밟을 시간이 다가왔다. 긴장하지 않고 여유롭게 선수들에게 자신감을 심어주겠다. 격정도 되지만 팬들이 원하는 부분을 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또 “F조에서 최악체다. 스웨덴을 잡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고, 우리 선수들도 잘 인지하고 있다”며 “국민이 원하는 게 무엇인지 알고 있다. 이기고 싶고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다. 응원해주시고 스웨덴전에서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별들이 뜬다... 팬은 즐거워

첫 우승 도전 메시·호날두... 네이마르·살라 ‘새 별’도

월드컵의 가장 큰 모미는 누가 뭐래도 현대 최고의 축구 스타들을 한 대회에서 볼 수 있다는 점이다. 2018 러시아월드컵에서도 세계 축구를 주름잡는 별들이 총출동해 팬들의 눈을 즐겁게 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에도 그 선봉에 설 선수는 크리스티아누 호날두(포르투갈·레알 마드리드)와 리오넬 메시(아르헨티나·FC바르셀로나)다. 두 선수 모두 속한 나라가 독일이나 스페인, 프랑스 등에 비해 강력한 우승 후보로 꼽히지는 않으나 이들의 존재 자체가 언제든 우승을 꿈꿀 수 있게 한다. 세계 축구의 정상에서 온갖 트로피와 기록을 쌓아왔지만, 월드컵 우승은 이들이 공통으로 누리지 못한 영광이기도 하다. 포르투갈은 호날두가 대표로 뛰는 등

안 2006년 독일 월드컵 4위가 최고 성적이다. 메시를 앞세운 아르헨티나는 4년 전 브라질 대회에서 결승에 올랐으나 ‘전차 군단’ 독일에 연장전에서 패했다. 4년 전 자국에서 열린 월드컵에서 메시와 호날두 못지않게 주목받았으나 불의의 부상으로 부무를 삼켰던 네이마르(브라질·파리 생제르)도 정상을 향한 의지를 불태우고 있다. 당시 콜롬비아와의 8강전에서 허리를 다쳐 독일과의 준결승 1-7 완패를 지켜봐야 했던 그는 이번 대회를 기다렸으나 올해 2월 오른쪽 중족골이 부러져 또 위기를 맞았다. 하지만 이달 초 크로아티아와의 평가전에서 복귀전을 치르고 골 맛을 보며 회복을 알렸다. 네이마르와 더불어 ‘메날두 시대’에 도전을 내밀 선수로는 지난 시즌 프리미

어리그에서 32골을 터뜨려 득점왕에 오른 무함마드 살라(이집트·리버풀)가 있다. 이집트가 앞선 두 차례 본선에서 2무 2패만 타라 살라흐는 월드컵 사상 첫 승, 첫 16강 진출만 이끌어낸 새 역사의 주인공이 된다. 브라질 대회 득점왕인 하메스 로드리게스(콜롬비아·바이에른 뮌헨), 케인, 독일 분데스리가의 강자 로베르트 레반도프스키(폴란드·뉘른) 등도 득점포를 예열하고 있다. 다비드 데 헤아(스페인·맨체스터 유나이티드)를 필두로 독일의 토니 크로스(레알 마드리드), 마누엘 노이어(뉘른)나 멕시코의 허비에르 에르난데스(일명 치차리토·웨스트햄) ‘수문장 열전’도 시선을 사로잡는다. F조는 물론 32개 출전국 중 최약체로 분류되는 한국 선수 중엔 손흥민(토트넘)이 관심을 독차지한다. 브라질 대회에 이어 생애 두 번째 월드컵에 나서는 손흥민은 지난 시즌 18골(리그 12골)을 터뜨리고, 도움 11개로 한 시즌 개인 최다 공격 포인트 기록(29개)을 새로 썼다. /연합뉴스

“영광” 안치홍 “깜짝” 임기영 “좋은 모습 보이겠다”

KIA 안치홍·임기영 태극마크 소감

‘태극 마크’에 대한 KIA 타이거즈 안치홍과 임기영의 표정은 달랐지만, 각오는 같았다. KIA 안치홍과 임기영은 양현종과 함께 지난 11일 발표된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 야구 국가대표팀 최종 엔트리 24명에 이름을 올렸다. 한국대표팀 에이스로 일찌감치 눈도장을 찍은 양현종은 이번 발표로 3회 연속 아시안게임 대표로 선발되는 영예를 안았다. 하지만 안치홍과 임기영에게는 사실상

의 첫 태극마크다. 임기영은 지난 겨울 2017 아시아프로야구 챔피언십(APBC) 대표팀에 선발되면 서 태극마크가 달린 유니폼을 입기는 했지만, 대만과 일본 아시아 3개국 간에 벌인 친선경기 형식의 대회였다. 쟁쟁한 선수들 사이에서 최종 24명에 선정된 두 사람은 엔트리 발표와 함께 화제의 이름이 됐다. 특히 임기영은 자신도 놀라 ‘깜짝 발탁’이었다. 지난 시즌 KIA 마운드의 한 축으로 자리했던 임기영은 올 시즌에는 어깨 부상 여파로 제 몫을 다하지 못했다. 시즌 출발이 늦어졌고, 공의 매서움이 떨어지면서 엔트리 발표 전까지 10경기에 나와 5.65의 평균자책점으로 3승 5패 1홀드를 기록하

는 등 성적이 좋지 못했다. 그만큼 국가대표 선발이라는 기쁨보다 걱정이 컸던 임기영이다. 임기영은 “전혀 생각을 안 하고 있었다. 올 시즌 좋지 않았고 기록은 고영표, 심창민 형도 좋고 김재영 등 좋은 (사이드암) 투수들이 많이 있어서 괜히 조심스럽다. 부모님은 좋아하시는 데 애매한 것 같다”고 어색한 표정을 지었다. 안치홍도 4년 전 인천 아시안게임의 모습이 겹치면서 팬들 사이에 이름이 회자됐다. 당시 안치홍은 좋은 성적에도 불구하고 ‘멀티 논란’의 희생양이 되면서 최종도 아닌 2차 엔트리에서 탈락하는 수모를 겪었다. 그런 만큼 이번 발탁을 놓고 안치홍은 다시 화제의 이름이 됐다. 하지만 이번에는 ‘4할 타자’이자 리그를 대표하는 2루수로 당당히 이름을 올린 만큼 안치홍은 “영광스럽고 기분 좋은 것 같

다. 특별히 의식한 것은 아니지만 올 시즌 준비 잘 한 만큼 그걸 인정 받은 것 같아서 뿌듯하다”고 소감을 언급했다. 소감을 말하는 표정은 달랐지만 두 사람의 각오는 ‘준비 잘해서 주어진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로 같다. 안치홍은 “컨디션 관리 잘하면서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겠다. 굳이 신경 안 쓰려고 하는데 4할 타율이 부각되니까 괜히 의식하면서 컨디션 관리를 잘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임기영도 “더 좋은 모습을 보여드리는 수밖에 없다. (챔피언십보다) 더 중요한 대회이기도 하고 대표팀에 뽑힌 것은 영광이다. 큰 무대에서 긴장하는 것은 없다.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난주에 던졌던 것처럼 잘하도록 하겠다”고 언급했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광주 FC U-18 금호고가 12일 창녕 스포츠파크 회양구장에서 열린 제73회 전국고교축구선수권대회 결승전에서 포항제철고를 2-1로 누르고 우승을 차지한 뒤 환호하고 있다. <광주 FC 제공>

금호고, 전국고교축구선수권대회 첫 우승

연장서 포항제철고 2-1 눌러

광주 FC U-18 금호고가 제73회 전국고교축구선수권대회 우승팀에 등극했다. 금호고는 12일 경남 창녕 스포츠파크 회양구장에서 열린 전국고교축구선수권대회 결승전에서 포항제철고 U-18 포항제철고를 연장상부 끝에 2-1로 누르고 우승을 차지했다. 앞선 준결승 경기까지 16득점 1실점의 막강 화력과 탄탄한 수비를 자랑했던 금호고는 마지막 결승 무대에서 행운의 자책골에 웃었다. 전·후반 40분씩 진행된 경기. 금호고가 전반 5분 포항제철고 전현병에게 이번 대회 두 번째 실점을 허용했지만 잘 준비된 세트피스로 전세를 뒤집었다. 전반 38분과 세트피스 상황에서 포항

제철고 진영으로 띄운 공이 상대 도재경의 머리를 맞고 골문으로 빨려 들어갔다. 상대 자책골로 1-1을 만든 금호고는 전·후반 10분씩 주어진 연장 상부에 돌입했다. 그리고 연장 전반 7분에도 세트피스 상황에서 금호고의 매서운 코너킥이 빛났다. 이번에도 포항제철고 윤석주가 머리로 쳐내려던 공이 골대를 가르면서 금호고의 2-1 승리가 확정됐다. 그동안 전국고교선수권대회에서 우승과 인연을 맺지 못했던 금호고는 5년 전승(18득점 2실점)으로 고교무대 전국왕좌에 오르게 됐다. <수상내역> ▲최우수감독상: 최수용 ▲최우수코치상: 신상훈 ▲영플레이어상: 조성권 ▲최우수골키퍼상: 신승훈 ▲최우수선수상: 정호연 /김여울 기자 wool@

한승혁·한승택 “롯데전 노게임, ‘한승’ 에겐 행운이죠”

덕아웃 T 특특

▲행운이죠 = KIA는 지난 10일 사직 원정에서 ‘하늘’ 덕분에 웃었다. 0-4로 뒤지던 4회말 1사 만루 상황에서 비가 내리면서 노게임이 선언된 것이다. 누구보다 간절하게 비를 바란 이는 이날 4실점을 한 투수 한승혁 그리고 포수 한승택이었다. 이날 덕수고 선배 한승혁과 배터리로 호흡을 맞춘 한승택은 타석에서 연달아 삼진을 당했다. 2사 2·3루, 2사 만루의 상황에서 나온 삼진이라 더 아쉬웠던 한승택의 공격. 한승택은 “정말 비가 간절했다. 우리 ‘한

승’들이 운이 좋았다”며 씩씩하게 웃었다. ▲훈련도 했는데 미안하게 = 엔트리 교체 미안한 사령관이었다. KIA는 12일 SK와의 경기에 앞서 갑작스럽게 엔트리 교체를 했다. 이날 선발로 예정됐던 헥터가 배탈 증세로 등판을 할 수 없게 되면서 급히 황인준이 선발로 내정됐다. 마운드에 돌발 변수가 생기면서 내야수 유민상을 빼고 투수 문경찬을 엔트리에 등록시키게 된 것이다. 취재진과의 자리에서 유민상의 말소 소식을 전한 김기태 감독은 “미안하게. 훈련도 치고 그랬는데”라며 안타까워했다. 지난 8일 처음 1군 엔트리에 등록된 유민상은 이날 9회 대타로 나와 첫 타석에서

홈런을 기록했었다. ▲무슨 문제 있나 = 12일 경기 전 안치홍이 기자들 앞에 섰다. 지난 11일 발표된 아시안게임 대표팀 명단에 이름이 오르면서 공식 인터뷰 자리가 마련된 것이다. 훈련이 끝나고 덕아웃으로 들어가던 김민호 코치가 기자들에 둘러싸인 안치홍을 보고 “왜 치홍이 무슨 문제 있나?”며 말해 사람들이 웃었다. 이어 “왜 타격 1위라? 수비 1위는 누구냐?”는 말을 한 김 코치는 ‘국가대표 발탁’에 관한 인터뷰라는 이야기에 고개를 끄덕이면서 라커룸으로 들어갔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태극공사, 챔스필드서 훈련

19~20일 NC

KIA가 오는 19~20일 챔피언스 필드에서 열리는 NC와의 홈경기에 아시안게임을 앞둔 양국 국가대표팀의 특별 훈련을 지원한다. 이번 훈련은 양국 대표팀의 소속 적응과 실점 감자 향상을 위해 마련됐다. 19일에는 오후 5시 35분부터 40분 동안 리커브 남녀 단체전이 열린다. 20일에는 오후 5시 55분부터 20분 동안 컴파운드 남녀 대표팀(김종호, 최용희, 홍성호, 김태운)과 여자 대표팀(송운수, 소채원, 최보민, 김윤희)이 단체전 맞대결을 한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